

요나의 감사기도

본문 : 요나서 2장 1~10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1:17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삼 일 밤낮을 그 물고기 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1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2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 주셨습니다.

3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4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6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7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8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9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2.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켜 그 배 속에 갇혔습니다. 요나는 삼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습니다.

3.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 요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여호

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 죽게 된 내 목소리를 들어 주셨습니다.”(2절)

5. 죽게 된 이유를 요나는 여호와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4절)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6. 그러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의 죽었던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7절) 라고 고백합니다.
7.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물을 바칩니다. 주님께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8, 9절)
8. 요나의 기도는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나락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신앙고백이고 기도입니다.
9. 그런데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한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버렸습니다.
10. 레위기 18장 15절에도 ‘토한다’¹⁾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도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땅에 벌을 내렸고,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쫓아낸 것이다.” 죄를 지어서 땅이 벌을 받고, 땅에서 백성들을 쫓아냈다고 하신 말씀에서 ‘쫓아냈다’는 것이 ‘토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11. 왜 큰 물고기는 요나를 토했을까요? 멋져보이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들어줄 수 없게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큰 물고기와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토해내신 것입니다.²⁾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보세요!

1. 요나는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삼일을 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2. 왜 큰 물고기는 요나를 토했을까요? 8, 9절을 함께 읽은 후 가족이 함께 토론해봅시다.



Pieter Lastman
요나와 고래(1621)

- 1) 히브리어 카야(קָיָה). ‘토하다’, ‘깨우다’의 뜻. 요나서 2장 10절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고, 레위기 18장 25절에서 죄지은 백성을 땅이 토했습니다. 이외에도 레18:28, 20:22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 2) 히브리어의 문법상 ‘토하다’를 능동형으로 해석하면 요나에게 질린 것은 큰 물고기가 되고, 사역형으로 해석하면 요나와 그의 기도에서 질린 이는 하나님이 됩니다. 한글 성경은 사역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